

# ‘一與多野’ 구도...野 수도권 전멸 공포

### 19대 총선 5%p 이내 박빙승부 31곳...신당바람도 거세 安 “새정치와 연대 불가”...의원들 잔존·탈당 갈팡질팡

안철수 의원이 독자 신당을 창당한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멸’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특성상 야권 후보 난립은 표심 분산으로 이어져 사실상 필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수도권 전체 선거구 112곳(서울 48곳·경기 52곳·인천 12곳) 가운데 5% 미만의 득표율자로 당락이 좌우된 곳은 4분의 1이 넘는 31곳(서울 15, 경기 15, 인천 1)에 이르렀다.

1천표 미만의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초박빙 지역도 서울 4곳(성동을·중랑을·서대문을·강서을), 경기 5곳(성남 중원·안산단원을·고양덕양갑·고양덕양을·시흥갑)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바람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의 유권자 2천8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새정치연합이 25.7%, 안철수 신당은 16.3%를 각각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위기감을 호소하지만 당에 남기도, 탈당에 나서기도 어려워 ‘좌불안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과의 연대·통합 불가론에 쉼기를 박았음에도 수도권 의원들은 연대 또는 단일화 불가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경기 안양 만안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이런 상태라면 야권은 필패이고 여권은 어부지리”라며 “안 의원이 여권에게 승리를 안겨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연

대·통합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과천)도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8대 총선에서 야권이 서울(48석)에서 7곳만 당선됐는데, 지금 상황이 당시 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어떤 식으로든 통합과 연대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이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수도권에서는 적극적 연대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분열은 결국 야권의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식상한 연대보다는 괴물 여권의 탄생을 막기 위한 신당과 새정치연합이 통 큰 결단에 나서는 감동의 연대만이 민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반쪽’난 중재회의 정희화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및 양당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석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측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 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안하나 못하나

### 쟁점법안 ‘네 탓 공방’에 본회의 또 무산 선거구 확정, 불리할 것 없는 현역들 느긋

여야가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확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치만 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0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상임위는 계속 공전되고 있다.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추진했던 본회의는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또다시 무산됐다. 정희화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를 불러 중재에 나섰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2주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정 의장은 일단 24일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태라면 오는 28일 본회의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만한 ‘콘텐츠’인 법안이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별로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의 비생산적 비협조로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새정치

연합은 약속을 깨고 공수표만 납발한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선 야당을 협상태이불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태도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면서 협상을 진척시키려면 야당이 양보하라며 버티기로 맞서고 있다.

선거구 확정도 여야가 걸로는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지만, 서둘러 회정을 마칠 경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역의원 간 정치생명을 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공전경쟁이 조기에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굳이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문대성 총선 불출마 與 현역 의원 6번째

새누리당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이 22일 내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인으로서 지키고 싶은 삶의 원칙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동안 직접 목도한 현실 정치의 거칠고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남부하는 곳이었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6번째다. 지난 2월 이한구(4선·대구 수성갑) 의원을 시작으로, 4월 강경희(6선·대전 중구) 의원, 5월 손인춘(비례대표) 의원, 8월 김태호(재선·경남 김해을) 의원, 10월 김희선(조선, 서울 서초갑) 의원 등이 잇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경가라운지

### 남구 도시첨단산단 그린벨트 해제 통과

#### 장병완 새정치 의원 유치



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남구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첨단 산단 조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시작도 하기 전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 같은 노후우를 바탕으로 40만평 규모의 2차 남구 추가 산업단지 유치도 반드시 성공시켜 남구를 일자리가 넘치는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의 광주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22일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장 의원이 유치한 약 15만평(48만5137㎡) 규모의 남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의 최대 핵심과제였던 그린벨트 해제가 지난주 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불과 1년 만에 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 30일까지 지역구 돌며 의정보고회

#### 박혜자 새정치 의원



역민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 민심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보고회 방식으로 마련된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우러진 대화의 광장(廣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지역구(서구 갑)에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이날 서구 광천동을 시작으로, 화정동·유덕동·상무1동·동천동주민센터 등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그는 “올해 광주시당위원장 활동과 예정된 활동을 통해 광주의 3대 현안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만큼 지

## 4·13 총선 현장

### “정권교체 위해 국민의 지지 받는 야당돼야”

#### 최경환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주위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경환 광주시 북구 을 예비후보는 22일 내내 4·13 총선 출마 이유와 자신의 정치신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야권의 상황이 참담한데, 야당의 위기는 민주

## 고재경 새정치 정책위의장 순천·곡성 출마 선언

고재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이 22일 내내 4·13 총선에서 순천·곡성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1997년 민주정권 수립의 빛나는 영광을 되살리고자 출마를 선언한다”며 “막말 폭탄과 순천대의대 유치를 물거품 시키고 고도 만소리로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이정현 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일절 하지 않겠다”면서 “민주회복 천리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천리를 걸으면서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2016년도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 교육생 모집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유도 및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 ■ 선정규모

- 225명 내외
-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각 45명 내외

### ■ 신청기간

- '15.12.23(수) ~ '16.1.25(월)(18시까지)

### ■ 지원내용

- 교육(150시간), 점포체험(16주), 멘토링(5개월)을 패키지로 지원

### ■ 교육생 선발절차

-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의 단계별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교육생 선발**  
 서류평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선발

➔

**이론교육**  
 소비행태변화, 브랜드경영 등  
기본·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사업모델 검증 및 안정화체험(16주)  
전담멘토링(점포체험시부터 5개월)

### ■ 신청 및 접수처

- 해당 전용교육장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전화번호	사업설명회 일시
서울전용교육장	02-723-0173	1차 : 1.7(목), 14:00 / 2차 : 1.15(금), 14:00
부산전용교육장	051-463-0212	1차 : 1.7(목), 14:00 / 2차 : 1.15(금), 14:00
광주전용교육장	062-367-0135	1차 : 1.7(목), 14:00 / 2차 : 1.15(금), 14:00
대전전용교육장	042-363-7494	1차 : 1.7(목), 14:00 / 2차 : 1.15(금), 14:00
대구전용교육장	053-353-7667	1차 : 1.6(수), 14:00 / 2차 : 1.13(수), 14:00